

# 불황이 '소비 트렌드' 바꿨다

장기 불황속에 광주·전남 지역민들의 소비 트렌드도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다. 소비자기반 창구에 접수된 불만 유형을 기준으로 할 때 회원권이나 의류, 건강식품, 화장품 등 소비성 상품의 상담 건수는 줄어든 반면, 생활용품 대어나 의류 수선 등 '알뜰형' 소비 품목에 대한 불만은 되레 커지고 있다.

9일 광주시소비자개발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에서 접수된 소비자 피해 상담 건수는 2천501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1년 전인 2007년(2천608건)에 비해 4.2% 감소한 것으로, 불황에 따른 소비 위축을 반영한 것이다.

## 전반적인 소비 위축

하지만 같은 기간 '알뜰형 상품'에 대한 불만은 오히려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의류나 구두 등을 수선하는 '세탁 서비스'의 경우 지난해 상담 건수가 98건으로, 2007년(79건)

### ■ 소비자 고발로 본 생활 패턴 알뜰형 품목 불만 커지고 소비성 상품은 상담 급감

보다 24.1%(19건) 늘었다. '세탁 서비스'에 대한 불만 증가는 불황과 고물가 기조 속에 새옷을 사기보다던 입던 옷을 고치거나 '리폼(reform)'하는 사례가 크게 늘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같은 상황은 '렌탈 서비스' 품목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전남에서 접수된 정수기와 비데 등 렌탈 상품 관련 상담 건수는 54건으로 2007년(21건)보다 157%(33건)나 늘었다. 내수 전체 속에 물건을 구입하기보다 '빌려쓰기'를 택하는 소비자들이 크게 늘어난 것이다.

반면 회원권이나 의류 구입 등에 대한 소비자 피해 상담 건수는 크게 줄었다. 시소비자개발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의 골프장과 콘도미니엄 회원권 상담 건수는 93건으로, 2007년(106건)보다 12.3%(13건) 줄었다. 같은 기간 양복 구입 관련 상담 건수도 43건에서 26건으로 39.5%(17건) 감소했다.

건강식품과 화장품 등 소비성향이 강한 상품들에 대한 불만 건수도 크게 줄었다. 건강식품은 지난해 94건의 피해 사례가 접수돼 2007년(109건)보다 13.8%(15건) 감소했고, 화장품은 2007년 37건에서 28

건으로 24.3%(9건) 줄었다. 소비자들의 닫힌 지갑은 교육부문에 대한 상담 건수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 광주의 학습교재 피해상담 건수는 95건으로, 2007년(166건)보다 42.8%(71건)나 감소했다.

## 교육비도 크게 줄어

이같은 현상은 상당수 학부모들이 학습교재나 학원 강좌 수 등을 줄임에 따라 불만 건수도 동반 감소했다는 게 시소비자개발센터의 분석이다. 시소비자개발센터 관계자는 "경기 침체로 '알뜰형' 상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이에 대한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며 "상당수 소비자들이 호화·사치형 상품은 물론이고 교육비까지 줄이는 등 불황이 소비자들의 생활 패턴까지 바꾸고 있다"고 말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 좁도둑들도 막간다

### 노래방 동전 투입함 뜯어가고 영업용 차·배달 오토바이까지

불황속에 서민 생계를 침해하는 좁도둑까지 극성을 부리고 있어 경찰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자영업자들의 생계수단인 영업용 차량 또는 오토바이를 훔쳐가거나 노래방의 동전 투입함을 통째로 뜯어가는 등 수법도 다양하다.

광양경찰은 10일 봉고차 등 훔친 영업용 차량을 이용해 건축사 사무실 등을 돌며 절도를 일삼아 온 10대 3명을 붙잡아 조사중이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17일 낮 12시께 광양시 옥곡면 사무실에 침입해 현금 20만원을 훔치는 등 최근까지 영업용 차량 3대와 2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9일에는 짙집방에 들어가 노래방의 동전 투입함을 뜯어 현금을 훔친 이모(15)군 등 고교생 7명이 입건됐다.

이들은 지난해 29일 오전 10시께 광산구 모 짙집방의 동전노래방에서 동전 투입함을 절단기로 자르고 동전 24만원을 훔치는 등 13차례에 걸쳐 동전

57만원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난 7일에는 상가에 들어가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김모(18)군 등 2명이 붙잡혔다. 김군 등은 지난해 27일 새벽 4시께 광주시 광산구 윤남동 P 차진점에 침입해 현금 2만원과 오토바이를 절취하는 등 7차례에 걸쳐 4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전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올 들어 2월까지 전남지역에서 발생한 절도 사건은 1천58건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891건)에 비해 18.7%(167건) 늘어난 것으로, 가뜩이나 경기침체로 신음하는 서민들이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이같은 상황은 광주도 비슷하다. 지난해 광주에서 발생한 절도는 1만2천여건으로, 2007년(1만700여건)보다 12.1%(1천300여건) 증가했다. 광주·전남의 경우 글로벌 금융위기가 시작된 지난해 8월 이후 절도 건수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김하중 목포지청장 사의

김하중(49) 광주지검 목포지청장이 사의를 표명했다. 10일 광주지검에 따르면 김 지청장은 최근 사표를 제출했으며, 모 대학 교수로 자리를 옮기기 위해 사의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김 지청장은 담양 출신으로 수원지검 공안부장,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장 등을 거쳐 지난 1월 목포지청장으로 부임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이주여성들과 함께 나무 심기. 남구는 10일 다문화가정 이주여성 10여명과 함께 남구 월산동 근린공원에서 제 64회 식목행사를 갖고 백합 4~5년생 120그루를 심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 건축현장 금품갈취 사이버 기자 등 3명 검거

여수경찰은 10일 건축현장에서 약점을 잡은 뒤 기사를 안 쓰는 대가로 금품 등을 뜯은 전광일보 주재기자 김모(51)씨 등 3명을 공갈 등 혐의로 붙잡아 조사중이다. 김씨 등은 지난 4일 여수시 봉산동 국동다가늘어항 건축물 철거현장에서 "석면 등이 먼지를 발생해 환경오

염을 시켰다. 기사화하고 고발하겠다"며 업체 관계자를 협박해 373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이다. 김씨 등은 또 업체 관계자에게 보도하지 않는 조건으로 현금 3천만~4천만원이나 철거공사 하도급을 달라고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여수=박영규기자 ykpark@kwangju.co.kr

## 진도 어린이집 여아 양귀비 대규모 밀경작 옷장에 깔려 숨져 신안 50대 여성 검거

9일 오후 3시30분께 진도군 A어린이집에서 김모(2)양이 높이 2m, 폭 50cm 크기의 옷장에 깔려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수술도중 숨졌다. 사고 당시 김양은 머리에 큰 부상을 입고 진도와 목포 병원 등을 거쳐 광주 모 병원으로 다시 옮겨졌으나 뇌출혈로 인해 사망했다. 진도경찰은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 중이다. /진도=박형영기자 hyppark@kwangju.co.kr

목포해경은 10일 신안 임자도 비닐하우스에서 양귀비 160여 그루를 밀경작해 보관한 A(여·59)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적발하고 양귀비를 증거물로 압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양귀비가 꽃 피는 5~6월 관계기관 합동 단속을 피하고자 비닐하우스에서 양귀비를 재배해 5월 이전에 처분한 것으로 해경 조사결과 드러났다. /목포=이성희기자 lsh@kwangju.co.kr

## 화물선 日 해역서 침몰 ... 한국인 선원 7명 실종

한국인 선원 7명을 비롯, 선원 16명이 탄 화물선이 일본 해역에서 침몰해 선원 모두가 실종됐다.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10일 오전 2시15분(현지시간)에 일본 도쿄만 이

즈오시마 동쪽 7마일 해상에서 제주 선적 4천255t 화물선 '오키프리아'호가 파나마 국적의 자동차운반선 '시그너스에이스(1만833t)'호와 충돌, 침몰해 선원 16명이 실종됐다. 침몰한

오키프리아호에는 선장 고영수(54)씨를 비롯해 한국인 선원 7명과 인도네시아인 선원 9명이 타고 있었다. 해경은 오키프리아호가 일본 가고시마항에서 출항해 5월50t을 싣고

여수항으로 향하던 중 항해 부주의로 시그너스에이스호와 부딪혀 침몰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해경에 따르면 오키프리아호의 선체는 최대 700만 달러까지, 선원과 화물은 무한대로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에 각각 가입한 상태다. 사고가 나자 일본 해상보안청은 구조선박 9척과 항공기 4대 등을 동원해 구조 작업을 펼치고 있다. /연합뉴스

### 마실수록 가벼워지는 수소수!

## 내 몸속의 활성산소를 없애자!

수소 물은 피부탄력 노화방지 항암효과 50% 향상 산화기 개선

최고수 품질 100% 원산 수소수 100% 원산

세계 최초로 개발된 생명체 수소수

수소수 효과: 노화 방지, 피부탄력 향상, 항암 효과 50% 향상, 산화기 개선

수소수 장점: 1. 활성산소를 없애준다, 2. 노화를 방지해준다, 3. 피부탄력을 높여준다, 4. 항암 효과를 높여준다, 5. 산화기 개선을 도와준다, 6. 면역력을 높여준다, 7. 스트레스를 해소해준다, 8. 수면의 질을 높여준다, 9. 소화기능을 개선해준다, 10. 혈액순환을 촉진해준다

수소수 제조: 한국수소수업협회, 한국수소수협회, 한국수소수연구소

문의: 010-7138-1001

## 광주원광신협

### 신협비교제 특별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확대

신협비교제 특별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확대

신협비교제 특별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확대

신협비교제 특별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확대

신협비교제 특별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확대

신협비교제 특별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확대

신협비교제 특별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확대

신협비교제 특별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확대

신협비교제 특별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확대

신협비교제 특별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확대